국내
마감시황

2026.3.12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유가 경계감 지속되며 혼조 마감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 고조되며 유가 상승
중소형주 강세에 코스닥 반등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583.25pt (-0.48%)	1,148.40pt (+1.02%)	827.51pt (-0.78%)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81.20 원 (+4.2 원)	3.6480% (+4bp)	6,728.50pt (-0.75%)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2,289 억	+5,072 억	+2,691 억
외국인	-23,711 억	-6,890 억	-12,308 억
기관	+577 억	+2,523 억	+9,009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중동 불안이 지속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과도했던 주가 변동성은 진정되고 있으나,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을 반영하며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코스닥은 중소형주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0.48% 내렸고, KOSDAQ은 1.02%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3.4조원, KOSDAQ은 약 13.9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4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건설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운송장비/부품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LNG선 수요 확대 기대감에 조선주가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체 에너지원이 주목받으며 태양광,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이어지면서 방산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국인 수급 이탈에 반도체와 금융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중공업(+7.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0%), 두산에너빌리티(+2.48%)가 올랐고, 삼성생명(-3.53%), SK하이닉스(-2.62%), 삼성전자(-1.11%)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